

“다락방 학교’서 스스로 공부하며 미래 꿈꿔요”



‘하얀나비’ 가수 김정호 노래비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에 건립

가수 김정호의 음악적인 빛자리를 담양에 그의 음악 세계를 기리는 노래비가 세워졌다.

담양 가로수사랑 군민연대는 오는 8일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에서 열리는 제5회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축제 개막식에 맞춰 노래비 제막식을 연다고 4일 밝혔다.

김원중, 허남석, 이필원, 백순진, 임창제, 흥민, 채은옥, 소리새 등 추억의 가수들과 유가족, 팬클럽, 담양 가로수 군민연대가 참여한 추진위원회는 기념사업의 하나로 지난 3년간 노래비 건립을 추진해왔다. 노래비는 가로 7m, 세로 7m 화강암 기반석에 벤치 형태의 기단을 설치하고, 앉아서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모습을 정동 삼물크기로 제작해 얹은 형태다. 메타세쿼이아 길 호남 기후변화 체험관 앞 잔디광장에 설치되며 사람이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히트곡이 흘러나오는 음향시스템도 갖췄다.

1973년 ‘이름 모를 소녀’로 데뷔한 김정호는 ‘작은 새’, ‘하얀 나비’, ‘고독한 여자의 미소는 슬퍼’, ‘빛속을 돌아서’ 등 노래로 사랑 받았으나 1985년 33살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담양 출신 판소리 명창 박동실의 외손자이자 국악인 어머니, 아쟁 명인 외삼촌 등의 영향으로 한국적 정서를 잘 표현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kwangju.co.kr /연합뉴스

길 위에서 삶을 배우는 YMCA 해밀학교 학생들

광주 도심에 전교생이 6명뿐인 ‘미니 학교’가 있다. 4층짜리 건물 옥상에 있는 이 학교는 10여평 남짓한 공간이다. 계단을 올라가는 통로엔 학생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로 가득하다.

광주 YMCA 금남로 본관 건물 옥상에 있는 비품창고가 ‘다락방 작은학교’로 재탄생했다. YMCA 해밀학교 학생들이 직접 꾸민 공부방이다. 묵은 벽지를 벗겨내는 일부터, 책상과 의자, 바닥까지 학생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이들은 지난 8월에 화순 청산방 조광석 작가의 공방을 찾아가 자신들이 쓸 가구들도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해밀학교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거나 친구들과 갈등, 원하지 않는 학교를 배정받는 등 나름의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다. 이들이 모여 미래를 꿈꾸는 곳이 ‘해밀학교’다. 해밀은 ‘비가 온 뒤에 맑게 갠 하늘’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재학생들은 오후 1시에 등교해 점심식사를 한 뒤 6시간 가량 검정고시를 위한 교과목 수업을 한다. 남은 시간은 자치회의를 거쳐 ‘해야할’ 보람있는 일을 선택하고 실천한다.

지난달 ‘다락방 작은 학교’ 공부방을 완성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 준비

옥탑방 창고 공붓방 만들어

검정고시 준비하며 추억 쌓아

한 아이들은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주제는 ‘Restart’. 담양 교사와 동행한 7명의 ‘뚜벅이 여행단’은 서울과 경기도 가평, 강원도 춘천과 정동진 등 광주와 멀리 떨어진, 쉽사리 가기 힘든 곳을 골랐다. ‘길에서 배우기 위해서’다.

“여기서는 저도 모범생입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 때는 또래들보다 훨씬 재밌게 놀아요. 규율에 갇혀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던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진짜’를 배운다고 할까...”

양현도(18)군은 “단순히 오래 친구들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굼뜨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양군은 집에서 한 시간이나 떨어진 외곽지역의 학교를 배정받았다. 학교를 가는 시내버스도 1시간에 한대 꼴로 이마저도 등교하는 학생들로 뺨뺨했다. 자리가 찾아졌고 수업도



광주YMCA 해밀학교 학생들이 최근 자유여행지인 강원도 춘천 남이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YMCA 해밀학교 제공)

따라가기 힘들었다. 그렇게 의도치 않은 말쑥 꾸러기가 됐던 그는 과감히 학교를 포기했다. 1년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해밀 학교를 찾았다.

해밀학교에서 양군은 단연 모범생이다. 친구들을 ‘학교 밖’으로 끌고 나와 꿈을 찾아주는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얼마 전에는 금남 지하상가에서 재료를 사 만들기 시작했던 파라코드·루프 팔찌를 판 수익금으로 캄보디아 해외봉사 제안을 한 것도 그다.

인터넷에서 배운 실력으로 만든 파라코드

팔찌는 의외로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하지만, 녹록지 않다. 재료가 1500원인데, 팔찌 가격은 2~3000원. 페이스 북에 홍보하고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이면 ‘통통마을 장터’에 나가 팔았는데, 3개월간 모든 돈은 고작 10만원 남짓. 그래도 해밀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양현도 군은 “해밀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이 느끼는 막연한 초조와 불안감이 없다. 진짜 행복한 삶을 스스로 찾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조정길·김미숙, 박형장·오현숙 부부 이달의 새농민상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10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조정길·김미숙씨(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부부와 박형장·오현숙씨(장흥군 관산읍 용전리) 부부를 선정했다.

조정길(56)·김미숙(49·성립농장)씨는 영암지역 특산물인 보리차 생산용 곁보리의 농가보급을 위하여 재종묘 조성하고 신품종 공급에 앞장서 영암보리차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박형장(57)·오현숙(54·용전우렁이농장)씨는 20년 전 귀농 후 농사지식을 쌓고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며 재조용 우렁이, 식용우렁이를 생산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대촌체육대회·경로잔치 열려



제65회 광주 대촌체육대회(대회장 남순영)와 경로잔치가 지난 3일 남구 대촌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동민들은 이날 대촌동 일대 환경정비사업에 공로한 광주시 환경생태국 송승우 계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광주서 ‘동서화합’ 사진전 연다

7~14일 5·18문화관 ... 수익금 네팔지진 피해 돕기

‘사진 찍는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광주에서 개인 사진전을 연다.

5·18 기념재단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 기념문화관 전시실에서 정 의장이 직접 찍은 사진 40점을 소개하는 사진전 ‘정의화의 사진(사진)’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동서화합을 추구하고자 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수부상자회)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도록 판매 대금 등 전시 수익금은 국제구호기구인 ‘한국월드비전’을 통해 네팔지진 피해 돕기 성금으로 기부된다.

광주 사진전에 선보일 40점은 정 의장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아프리카와 유럽, 알래스카 등 세계 각국에 다니며 촬영한 작품이다.

정 의장은 부산대 의과대 재학 중 학보사 사진기자회와 편집기자로 활동했으며 졸업반이던 1972년 10월 첫 작품전을 연 바도 있어 ‘사진 찍는 국회의원’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고 한다. 자신이 찍은 사진으로 탈력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을 돌릴 정도로 사진에 애착이 많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사진전 개막식은 오는 8일 오후 3시에 기념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시 관련 문의는 5·18 기념재단 기념사업부(360-0521).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진 5·18 기념재단 제공>

광주전남기협, 손철주 초청 인문학 강연 성료

광주전남기협(회장 구길용)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일 광주 언론진흥재단 광주사무소에서 학교계 손철주 편집주간을 초청해 미술 인문학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는 문화부와 사회부, 정치부 등 기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손 주간은 ‘숨어 살기와 혼자 이루기’라는 주제로 옛 그림에 담긴 은자(隱者)의 이미지에 대해 설명했다.

손 주간은 숨어 사는 선비들이 옛 그림에 어떤 방식으로 담겼고,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쉽게 풀어냈다.

그는 그림의 배경을 이루는 역사와 문학을 이해하고 마음을 실어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옛 그림을 보면서 출세에 대한 인간의 욕망, 고결하고 순결한 마음



을 지니는 빙심(氷心)의 중요성, 자연은 날리는 꽃잎이나 흐르는 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섭리 등을 공유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안전자서 아들 이승훈(광남일보 사회부 기자)군 정환동·양유순씨 딸 문영(광남일보 지역사회부 차장)양=9일(금) 오후 1시 30분 광주시 서구 벽진동 제이아트웨딩컨벤션 1층 아모레를.
- ▲김영일(전 광주시 덕남정수사업소장)·정윤숙씨 아들 효성군 임기식·정이순씨 딸 효진양=11일(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능성동 리페스타 웨딩홀 2층 엘루체를.

중친회

- ▲진주강씨 통정공 종회(회장 강태수) 임원회의=7일(수) 낮 12시 진주강씨 광주·전남 총회회관 3층 회의실 062-228-3368.
- ▲문화취미 하정공파 광주중친회(회장 류재균)=12일(일)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대인동 백운산호텔 062-222-4569.
- ▲경주배씨 달성판서공파조 배연상장군 추양대제=12일(일) 오전 11시 경남 함

양군 수동면 원평리 산 60번지 연화사(蓮花洞·지리산휴게소에서 약 30분).

동창회

- ▲목포고등학교 제5회 동창회(회장 조보규) 월례회=5일(월) 오후 6시 광주 금강산식당 062-224-0808.
- ▲광주 북성중학교 동창회 제40회 한마음대축제=24일(토)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광주 북성중학교 잔디구장(우천시 체육관) 062-523-1300.

알림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을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 지 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 양육상담 062-264-4370, 5308.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학교근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

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재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모집

▲무등예술종합평생교육원 수강생=유아교사를 위한 반주법, 정서를 위한 악기 사용법·뮤지컬 템댄스·바른몸 운동지도사 양성과정. 노동부 지원·국비지원(직장인·일반인·창업예정인, 자격증반 수시 접수) 062-269-6669, 010-3606-0230.

- ▲각화문화회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 ▲디자인 습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천

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 인습 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 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원=자원봉사 남파 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p>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p>	
<p>201호 故김영희 님 (여/70세) 子/子婦: 임석훈/공수경, 정대/송주은, 정삼/소란희 女/婿: 임윤경/이경옥 夫君: 임득춘 •발 인: 10월 5일 •장 지: 고희포두 선명 •연락처: 227-4381</p>	<p>301호 故조영선 님 (남/58세) 子/子婦: 조종근, 송근/이경은 未亡人: 김부덕 •발 인: 10월 5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2</p>
<p>401호 故박동열 님 (여/87세) 子/子婦: 송연숙, 김상희/박순금, 근배 女/婿: 김희자/임병영, 애자/성기주, 언자/박영사 •발 인: 10월 5일 •장 지: 울문사 추모관 •연락처: 227-4383</p>	<p>402호 故정재영 님 (여/75세) 子/子婦: 유정석/김희영, 정만/조연숙 女/婿: 유정희/정규식 •발 인: 10월 5일 •장 지: 화순 용면 선명 •연락처: 227-4384</p>
<p>102호 故구유선 님 (남/71세) 子/子婦: 구영균/김소연, 장주/기주연 女/婿: 구영선/김정원 未亡人: 민효정 •발 인: 10월 6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p>	
<p>孝 金호 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p>	
<p>문의 (062)227-4000</p>	